

## 대졸자들의 취업 여부에 따른 정신건강의 변화\*

장 재 윤<sup>†</sup>                      장 은 영                      신 희 천  
성신여대 심리학과              Iowa State Univ.              아주대 심리학과

본 연구는 청년들의 취업 및 실업 경험이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종단적으로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미취업 상태로 남아있는 사람들의 정신건강의 문제 그리고 취업에 성공하는 경험이 정신건강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국내 대학교 4학년생들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약 6개월 간격으로 2차 조사, 3차 및 4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네 시점에서 모두 응답자들의 취업여부를 조사하고 정신건강을 우울·불안 차원과 부적응 차원으로 측정하였다. 4차 조사까지 모두 응답한 560명 중에서 2차, 3차 및 4차 시점의 취업여부에 의해서 집단을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2차, 3차 및 4차 시점 순서대로, 모두 취업 상태인 집단('취업-취업-취업 집단'), 3차 시점에서 취업에 성공한 집단('미취업-취업-취업 집단'), 4차 시점에서 취업에 성공한 집단('미취업-미취업-취업 집단') 그리고 모두 미취업 상태인 집단('미취업-미취업-미취업 집단'). 각 집단별로 취업여부에 따른 정신건강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취업 성공 및 실업 경험은 우울·불안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은 취업 전 시점에 비해 우울·불안 수준이 낮아졌으며, 장기간 미취업 상태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졸업 3개월 후인 3차 시점에서 우울·불안 수준이 높아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소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에, 부적응 수준은 취업의 성공 및 실패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지 않았다. 끝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 및 장래 연구의 과제가 논의되었다.

주요어 : 취업, 실업, 청년실업, 정신건강, 종단연구, GHQ

\* 이 논문은 2003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3-074-HS0008)

† 교신저자 : 장재윤, 성신여대 심리복지학부,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 3가 249-1

E-mail : jaeyoonc@sungshin.ac.kr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에서 청년실업은 중요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청년실업은 청년에 해당하는 15-29세의 경제활동인구 중 조사 기간 동안에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했으나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2005년 8월 현재 35만4000명으로서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7.4%에 해당한다(동아일보, 2005, 9, 16). 이러한 수치는 전년도의 7.2%에 비해서 0.2%가 줄어든 셈이다. 그러나 구직단념자도 14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3만6천명 증가하였으며(경향신문, 2005, 9, 16), 현재 취업을 준비 중인 비경제활동인구까지 고려한다면, 청년의 취업 혹은 실업은 여전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망해야 하는 주요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이다. 청년층의 취업과 실업 경험은 사회적으로는 자살, 살인, 범죄율의 증가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인 동시에, 개인적으로도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삶의 경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청년층의 취업 및 실업 경험이 청년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 본 연구는 청년들의 취업 및 미취업 경험이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종단적으로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미취업 상태로 남아있는 사람들의 정신건강의 변화를 살펴보는 한편,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청년들이 취업이 정신건강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학 4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약 6개월 간격으로 네 시점에서 취업상태와 정신건강을 측정하여 그 변화를 알아보았다. 한편, 본 연구는 장재운, 장은영, 김범성, 노연희, 이지영,

및 한지현(2004)의 후속 연구로서, 선행연구에서 3차 시점까지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장기간의 실업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4차 조사 자료를 추가하여 정신건강의 변화를 고찰한 것이다.

#### 실업과 정신건강의 관계

실업이 정신건강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한 많은 경험적 연구들이 있다(Murphy & Athanasou, 1999). 특히 우리보다 먼저 실업 및 청년실업의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호주나 유럽의 서구사회에서는 청년실업이 초래하는 다양한 문제들과 그것에 대처하는 방안들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심리적으로 청년실업은 자존감을 낮추고(Prause & Dooley, 1997), 우울과 같은 정서 문제를 일으키며(Axelsson & Ejlertsson, 2002; Hammarstrom & Janlert, 1997), 삶에 대한 만족 수준을 저하시키고(Brief, Konovsky, Goodwin, & Link, 1995; Creed & Macintyre, 2001), 전반적인 정신건강 수준에 해악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achman, O'Malley, & Johnston, 1978; Banks & Jackson, 1982; Gurney, 1980; Hannan, O'Riain, & Whelan, 1997; Hoare & Machin, 2004; Patton & Noller, 1984; Schaufeli, 1997; Winefield, Tiggemann, Winefield, & Goldney, 1993). 이 외에도 청년실업은 범죄(Baron & Hartnagel, 2002), 알콜사용(Abma, 1991; Dooley & Prause, 1998; Hammarstrom, Janlertt, & Winefield, 2002) 및 약물남용(Atkinson, Montoya, Whitsett, Bell, & Nagy, 2003; Baron & Hartnagel, 2002; Hammarstrom et al., 2002; Kandel, 1980)과 같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 연구들도 있다.

이상의 내용들은 대부분 취업상태의 청년들과 미취업 상태의 청년들의 심리적 및 행동적

문제 수준을 비교하여 얻어진 결과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들에 근거해서 보면, 실업의 경험은 개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다른 설명가설도 제안된 바 있다. 즉 본래 심리적 혹은 행동적 문제를 지닌 사람들이 취업에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실업의 영향을 다룬 종단연구 중에서는 실업 상태의 사람들이 취업 상태의 사람들보다 본래 자존심이 낮았거나(Hoare & Machin, 2004), 정신건강이 나빴거나(Patterson, 1997), 우울 수준이 높았다(Hammarstrom & Janlert, 1997)는 점도 보고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종속치인 정신건강 수준과 청년실업의 관계를 추론한다면, 두 가지 인과관계가 가능하다. 정신건강 수준이 본래 낮은 사람들이 취업에 실패할 수 있거나, 혹은 취업에 실패하여서 정신건강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 Winefield(1997)에 의하면 전자는 선택가설, 후자는 노출가설에 해당한다.

이후로 이 두 가지 경쟁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여러 종단연구가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노출가설이 지지되었다. 구체적으로 2차 시점에서 측정된 정신건강 수준에서 1차 시점의 정신건강 수준을 통제하고 난 후에도 취업 상태의 청년들보다 실업 상태의 청년들의 정신건강 수준은 더 나빴다(Bachman et al., 1978; Banks & Jackson, 1982; Gurney, 1980; Patton & Noller, 1984; Winefield et al., 1993).

그러나 선택가설과 노출가설이 모두 지지된 종단연구도 있다. Patterson(1997)의 연구를 보면, 2차 시점에서 실업 상태에 있던 청년들의 정신건강 수준은 1차 및 2차 시점에서 모두 지속적으로 나쁘게 유지되었지만, 2차 시점에서 취업 상태에 있던 청년들의 정신건강 수준

은 2차 시점에서 1차 시점에서보다 유의하게 높아졌다. 이는 노출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실업 상태의 청년들의 정신건강 수준이 1차 시점에서 본래 유의하게 더 나빠서 선택가설도 지지되었다.

종단설계를 통해서 청년실업과 정신건강을 설명하는 이 두 경쟁가설을 검증한 국내연구로는 장재운 등(2004)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의 시작 시점에서 참가자들은 모두 대학 졸업예정자들이었으며, 6개월 간격으로 세 시점에 걸쳐서 이들의 정신건강이 측정되었다. 그리고 2차 시점과 3차 시점의 취업여부에 따라 세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2차 및 3차 시점에서 모두 실업 상태인 집단(미취업 집단)에서만 1차 및 2차 시점보다 3차 시점에서 정신건강 수준이 유의하게 더 나빴다. 또한 1차 시점의 정신건강 수준을 통제했을 때에도, 지속적으로 실업 상태인 집단(미취업 집단)이 지속적으로 취업 상태인 집단이나 2차 시점에서 실업 상태였지만 3차 시점에서 취업한 집단보다 정신건강 수준이 더 나빴다. 이러한 결과는 노출가설을 지지한다. 다만 정신건강을 우울·불안과 부정적응의 하위척도로 세분화하여 분석했을 때, 우울·불안에서는 남성들의 경우에 선택가설도 지지되었다. 즉, 남성들의 경우에 다른 두 집단보다 지속적으로 실업 상태인 집단에서 1차 시점에서의 우울 및 불안 수준으로 측정된 정신건강이 더 나빴다.

이러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에 근거해서 보면, 청년실업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청년의 실업과 정신건강과의 관련성을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추가적으로 규명되어야 한다. 첫째, 실업 상태의 지

속에 따른 정신건강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여러 시점에서의 측정이 필요하다. 구직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 취업 시점이 끝난 시기, 실업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시기에 따라 각각 실업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Schaufeli (1997)는 대학졸업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중단 연구를 수행한 결과, 학교를 졸업하고 실업상태인 사람들은 실업기간이 길어질수록 정신건강이 점점 더 나빠짐을 발견하였다. 앞서 살펴본 대부분의 중단연구들에서는 두 시점(1차 시점과 2차 시점)간의 비교에만 한정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일정한 취업 시점이 존재하고 대학졸업을 전후로 하여 취업의 성패가 사실상 결정되는 환경에서 청년실업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서는, 좀더 여러 시점에서 측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실업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장기간에 걸쳐 알아보는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선행연구인 장재윤 등(2004)의 연구에서는 세 시점에 걸쳐 실업의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두 시점만의 변화를 살펴본 기존 연구에 비해 진일보하였으나, 졸업 후 3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만 조사가 이루어짐으로써 실업의 장기적 영향을 살펴보는 데는 미흡하였다. 청년실업은 학교에서 직업으로 이행 과정에서 성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저해하고(Gurney, 1980; Hannan et al., 1997), 개인의 유능성이나 자율성을 떨어뜨린다(Warr, 1987). 더욱이 장기간의 실직 상태는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므로 이는 개인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Fryer, 1995). 청년실업에 수반되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실업의 기간이 장기간

으로 늘어날수록 정신건강 수준은 더욱 혹은 지속적으로 나빠진다고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구직활동이 시작되기 이전 시점(시점1), 본격적인 구직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점(시점2), 그리고 졸업 후 3개월이 지났고 취업시점을 마친 시점(시점3)에 더해, 3차 조사가 이루어지고 6개월이 경과한 시점(시점4)에서 정신건강의 수준을 측정하여, 실업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 정신건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셋째, 청년실업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속측정치를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 청년실업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많은 연구들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측정치는 일반정신건강질문지(GHQ)이다(Murphy & Arthanasou, 1999, 90쪽에서 인용). 그런데 장재윤 등(2004)은 종속치에 따라 청년실업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므로 일반정신건강질문지를 사용할 경우에, 우울이나 불안 같은 정서적인 문제와 적응수준과 같은 기능문제를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우울 및 불안 점수와 부적응 점수를 합산하여 측정된 정신건강은 정서적 차원과 기능적 차원의 영향이 혼재될 가능성이 있어, 실업이 미치는 영향을 각기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청년들의 취업성공 경험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실업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다룬 여러 선행연구들을 개관한 결과, 많은 연구들에서 노출가설을 지지하는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장재윤 등, 2004; Bachman et al., 1978; Banks & Jackson, 1982; Gurney, 1980; Patton & Noller, 1984; Winefield et al., 1993). 그런데, 노출가설

은 ‘취업 실패에 노출된 효과’와 ‘취업 성공에 노출된 효과’로 나누어 살펴봐야 실업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보다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다. 중단연구에서 노출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은, 대체로 2차 시점에서 측정된 정신건강 수준에서 1차 시점의 정신건강 수준을 통제하고 난 후에도 취업 상태의 청년들보다 실업 상태의 청년들의 정신건강 수준이 더 나쁜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1차 시점의 정신건강 수준을 통제된 상태에서 2차 시점에서의 정신건강 수준의 차이는, 취업에 실패한 경험으로 인해 정신건강이 나빠졌기 때문이거나(‘취업실패 노출효과’) 취업에 성공함으로써 정신건강이 좋아져서 생긴(‘취업성공 노출효과’) 차이에 모두 기인할 수 있다. 예컨대 Patterson(1997)의 연구에서, 2차 시점에서 실업 상태에 있던 청년들의 정신건강 수준은 1차 및 2차 시점에서 모두 지속적으로 나빠게 유지되었지만, 2차 시점에서 취업 상태에 있던 청년들의 정신건강 수준은 2차 시점에서 1차 시점에서보다 유의하게 높아졌는데, 여기서의 노출효과는 취업성공 노출효과이다. 이처럼 실업과 정신건강간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업뿐만 아니라 취업 성공 경험과 정신건강의 관계도 동시에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 취업과 정신건강의 관계

앞서 살펴본 여러 선행연구들은 청년실업이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해서는 비교적 일관된 결과를 보여준다. 그렇다면 반대로 취업의 경험은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Goldsmith, Veum, 및 Darity (1997)는 성인기에 들어서는 시점에서 노동력

시장을 접해보는 경험은 청년들로 하여금 자기 가치감을 높이는 기회가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Smailes(2003)의 연구에서는 작업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는 우울과 불안을 높여 청년들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Mortimer와 Staff (2004)의 연구를 보면, 성인기에 들어서는 시기에 일을 해보는 경험은 작업 환경에서의 스트레스에 더욱 민감하게 만들어줄 가능성도 있지만, 이보다는 청년들로 하여금 작업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옳는 것보다는 옳는 것이 더 많다고 보았다.

청년의 취업 경험이 정신건강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지를 알아본 여러 중단연구들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먼저 Graetz(1993)는 총 6,151명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중단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실업 상태였다가 취업 상태로 변화하는 사람들은 정신건강이 유의하게 더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Lahelma(1992)의 연구에서는 정신건강 수준을 두 번에 걸쳐서 측정하였는데, 이 두 시점 사이에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의 경우에 정신건강 수준이 유의하게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Morrell, Taylor, Quine, Kerr, 및 Western(1994)의 연구에서는 GHQ의 절단점을 사용해서 정신건강의 문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비율을 종속치로 사용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종속치를 측정한 두 시점 사이에 취업 상태에서 실직 상태로 옮겨간 사람들 중 약 50%가 정신건강에 문제를 보였고, 실직 상태에서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 중 약 65%가 정신건강에서 문제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취업의 경험은 정신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보인다. 적어도 실직 상태에서 취업 상태로 옮겨가는 시점에서는 이러한 취업이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취업의 상태가 지속된다면 이러한 정신건강은 어떻게 변화할까? 취업자들의 정신건강을 알아본 일부 연구들을 보면, 취업 상태는 항상 정신건강에 순기능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인 연구들도 있다(Creed, Muller, & Machin, 2001; Winefield, Tiggemann, & Winefield, 1993). 본 연구에서는 취업의 경험이 정신건강에 긍정적 효과를 보이는지 검토하고, 취업의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 정신건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연구 방법

### 조사시기

본 연구에서 전국의 4년제 대학 졸업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약 1년 6개월에 걸쳐 총 4회에 걸친 종단 조사를 실시하였다. 4회에 걸친 종단적 조사의 시기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졸업예정자와의 면담을 통해 알아본 결과 지방대학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는 구직활동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찍부터 구직과정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졸업예정자들의 구직활동이 시작되기 직전인 2003년 5월에 1차 조사를 실시하여 구직활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기 전의 개인의 기본적인 심리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2차 조사는 한 해에서 구직활동이 왕성해지는 11월 중에 실시하였다. 이 시기는 이듬해 2월 대졸 예정자들이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3차 조사는 1차 조사 당시에 졸업예정자들이었던

학생들이 대부분 졸업하고, 취업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직장에 적응하는 초기를 경험하며,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졸업 후 미취업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시기인 2004년 5월에 실시되었다. 3차 시점까지의 조사는 장재윤 등(2004)의 연구에서 실시되었다. 선행연구에서 3차 시점까지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장기간의 실업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4차 조사 자료를 추가하였다. 4차 조사는 3차 조사를 실시하고 6개월 후인 2004년 11월에 실시되었다. 이 시기는 구직활동을 시작했던 시점인 2차 조사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기이며, 미취업자인 경우 실업이 장기간 지속된 시점이다.

### 조사방법

본 연구의 조사 방식은 조사요원의 설문조사와 온라인 상의 설문조사를 복합적으로 활용하였다. 1차 조사에서 3차 조사까지의 자세한 조사방법은 선행연구인 장재윤 등(2004)에 자세히 소개하였으나, 이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차 조사에서는 조사요원이 직접 방문·면담을 통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4년제 대학의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각 지역별 표본 수 내에서 각 학교별로 표집인원을 배분한 후 계열별 및 남녀별 비율에 따라 대상자들을 임의로 표집하였다. 다만 특수한 분야로 사회진출을 할 가능성이 높거나, 이미 취업이 확정되었거나 기타 취업의사가 없는 사람들은 제외하였다. 지역별 국공립대 및 사립대의 모집단 비율을 반영하여 20개 대학을 선정하고 각 대학별로 96명~144명씩 표집하여 총 2,747명의 자료가 수

집되었으며, 최종 2,542명의 응답이 1차 조사에서 타당한 분석자료로 분류되었다.

2차 조사는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조사에서 대상자들의 이메일 주소를 확인한 후, 메일 주소로 질문지에 응답할 수 있는 사이트를 전송하였다. 설문응답의 동기를 높이기 위해 조사 한 달 전에 모든 1차 조사 참여자들에게 사전 협조요청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참여자 중 추적을 통해 사례할 것임을 고지하였으며 사전 협조요청 이메일이 반송되거나 읽지 않고 삭제된 경우에는 연구원들이 개별적으로 전화하여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였다.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하고 최종 1,301명의 응답이 2차 조사에서 타당한 분석자료로 분류되었다. 3차 조사는 2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모든 1차 참여자들에게 사전 협조요청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또한 3차 조사에서 참여율이 더욱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협조요청 이메일에서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터넷 상품권 1만원권을 받게 된다고 알려주어서 참여동기를 높이고자 하였다. 나머지 실시 방법도 2차 조사와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며,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하고 최종 1,384명의 응답이 3차 조사에서 타당한 분석자료로 분류되었다.

4차 조사도 1차 조사 때 확보한 조사 대상자의 이메일을 통해 인터넷 상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 한 달 전에 모든 1차 응답자들에게 사전 협조 요청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4차 조사에서도 응답률이 더욱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에 끝까지 참여한 사람들에게 인터넷 상품권 1만원권을 받게 된다고 알려주어서 참여 동기를 높이고자 하였다. 사전 협조 요청 이메일이 반송되거나 읽지 않고 삭제된 사례의 경우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4차 설문 조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로서 총 1,674명에게 4차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메일을 발송하였다. 다만 이 1,674명에게 메일을 발송한 후, 설문의 맨 처음 화면에서 현재 응답자들의 상태를 묻는 질문에서 재학 중이거나 대학원에 진학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총 767명이 분석에 포함될 수 있는 타당한 자료로 분류되었다. 표 1에는 조사시기와 방법,

표 1. 조사시기, 조사방법 및 집단구분 기준

	1차조사	2차조사	3차조사	4차조사
조사 시기	2003년 5월	2003년 11월	2004년 5월	2004년 11월
조사 방법	면담 설문조사	온라인 조사	온라인 조사	온라인 조사
응답 인원	2,542명	1,301명	1,384명	767명
조사대상자 상태	대학 재학중	졸업 3개월전	졸업 3개월후	구직개시 1년후
조사시점의 의미	기저선 시점	구직활동 시점	구직종료 시점	추수시점
집단구분 (2,3,4차 시점의 취업여부에 따른)	이른 취업집단:	취업	취업	취업
	졸업전후 취업집단:	미취업	취업	취업
	늦은 취업집단:	미취업	미취업	취업
	장기 실업집단:	미취업	미취업	미취업

응답인원 그리고 취업 여부에 따른 집단 구분 기준이 요약되어 있다.

#### 질문지 및 사용된 척도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연구자들이 참여한 ‘청년실업에 대한 패널조사 연구’에서 측정된 일련의 변인군(인구통계학적변인, 개인특성변인, 구직행태변인, 정신건강변인)에서 선정하였다. 1차 조사에서는 개인의 인구통계변인과 정신건강을 측정하는 척도를, 2차 조사, 3차, 그리고 4차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취업여부와 정신건강을 측정하는 척도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사용된 척도들은 다음과 같다.

#### 일반정신건강 척도

청년실업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많은 연구들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된 측정치는 일반정신건강질문지(GHQ: General Health Questionnaire)이다(Murphy & Athanassou, 1999). 본 연구에서는 신선인(2001)이 한국판으로 제작한 척도인 KGHQ-30의 30문항 중 신현균과 장재윤(2003)이 사용한 단축형 12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12문항은 우울·불안 요인 6문항, 사회부적응 요인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GHQ 및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정신건강 척도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장재윤 등(2004)의 연구를 참고하기 바란다.

정신건강은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0점은 ‘매우 아니다’, 1점은 ‘아니다’, 2점은 ‘그렇다’, 3점은 ‘매우 그렇다’로 표시하였고, 값이 높을수록 정신건강 수준이 나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건강 수준은 우울·불안(‘GHQ\_우울·불안’으로 명명함), 사회부적응(‘GHQ\_부적응’으로 명명함) 및 총점

(‘GHQ\_총점’으로 명명함)으로 나누어서 알아 보았다.

본 연구의 최종표집을 대상으로 1차, 2차, 3차, 4차 조사에서 얻은 신뢰도는 우울·불안의 경우에 네 시점의 순서대로  $\alpha=.77$ ,  $\alpha=.81$ ,  $\alpha=.83$ ,  $\alpha=.79$ 이었고, 사회부적응의 경우에는  $\alpha=.81$ ,  $\alpha=.83$ ,  $\alpha=.82$ ,  $\alpha=.84$ 이었다. 전체 12문항에서는  $\alpha=.83$ ,  $\alpha=.86$ ,  $\alpha=.86$ ,  $\alpha=.85$ 이었다. 응답자별로 우울·불안 6문항, 사회부적응 6문항, 전체 12문항의 총합을 구하여 측정치로 사용하였다.

#### 인구통계변인

응답자들은 인구통계변인으로 자신의 성별과 연령을 응답하도록 하였다.

#### 최종 분석 대상자들의 특성

#### 집단의 구성

767명의 자료에서 2차 및 3차 시점에서 응답하지 않았거나, 네 번의 조사시기에 한 번이라도 휴학생, 재학생, 편입생 혹은 대학원에 진학한 것으로 분류된 207명은 일단 제외되었다. 나머지 560명의 참여자를 2차, 3차 및 4차 시점의 취업여부에 의해서 집단을 나누었다. 2차, 3차 및 4차 시점에서 모두 취업 상태인 85명을 ‘취업-취업-취업’ 집단에 포함시켰다. 2차, 3차 및 4차 시점에서 미취업, 취업 및 취업 상태인 214명을 ‘미취업-취업-취업’ 집단에 포함시켰다. 2차, 3차 및 4차 시점에서 미취업, 미취업 및 취업 상태인 80명을 ‘미취업-미취업-취업’에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2차, 3차 및 4차 시점에서 모두 미취업 상태인 157명을 ‘미취업-미취업-미취업’ 집단에 포함시켰다. 2차, 3차 및 4차 시점에서 순서대로 미취업, 취



업, 미취업 상태( $n=17$ )이거나, 취업, 미취업, 미취업 상태( $n=2$ )이거나, 취업, 미취업, 취업 상태( $n=1$ )이거나, 혹은 취업, 취업, 미취업 상태( $n=4$ )인 사람들은 사례수가 작아서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최종 536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최종적으로 자료 분석에 포함된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성별 구성부터 보면, 남성이 280명(52.2%)이고, 여성이 253명(47.2%)이며, 3명(0.6%)은 성별이 확인되지 않았다. 연령은 4차 조사 당시에 21세부터 31세까지로 21세부터 29세까지가 99.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네 시점의 취업여부에 의해서 나는 네 집단이 성별과 연령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각 집단별로 연령의 차이를 알아보았는데 변량분석에서는 집단의 효과는 유의하였지만 ( $F_{(3,526)}=3.36, p < .05$ ), Scheffe 검증을 통한 사후 검증에서는 미취업-미취업-미취업 집단( $M=24.30$ ), 미취업-미취업-취업 집단( $M=24.51$ ), 미취업-취업-취업 집단( $M=24.90$ ) 및 취업-취업-취업 집단( $M=24.30$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네 집단에서 남녀 비율도 유의하게 달랐다( $\chi^2=20.46, p < .001$ ). 미취업-취업-취업 집단(남, 58.4%, 여, 41.6%), 미취업-미취업-취업 집단(남, 45.6%, 여, 54.4%) 및 미취업-미취업-취업 집단(남, 40.4%, 여, 59.6%)에서는 남녀 비율이 별로 차이가 없었지만, 취업-취업-취업 집단(남, 66.7%, 여, 33.3%)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의 비율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이 네 집단에서 남녀 비율이 유의하게 달랐으므로 성별을 피험자간 변인으로 삼아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 결측자료의 분석

본 연구의 1차 조사에서는 2,542명의 자료가 얻어졌지만, 4차 조사에서는 767명의 자료가 얻어졌다. 따라서 1차 조사에 비해서 4차 조사에서 결측치가 상당히 많아진 셈이다. 따라서 1차 조사에 참여하였으나 4차 조사까지 추적되지 못한 사람들이 4차 조사까지 참여한 사람들과 본래 기저선에서 다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4차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 767명(이후부터 '4차 응답 집단'이라고 명명함)과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1,775명(이후부터 '4차 미응답 집단'이라고 명명함)의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1차 측정치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먼저 성별부터 보면, 4차 미응답 집단(남, 57.5%, 여, 42.5%)과 4차 응답 집단(남, 54.8%, 여, 45.2%)에서 남녀 비율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chi^2=1.60, n.s.$ ). 이외에 연령(4차 미응답 집단과 4차 응답 집단 순서대로,  $M=24.69, M=24.64, t=.36, n.s.$ )에서도 두 집단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1차 조사에서 측정된 정신건강 수준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4차 미응답 집단과 4차 응답 집단 순서대로, 우울·불안( $M=8.20, M=8.20, t=-.01, n.s.$ ), 부적응( $M=7.60, M=7.67, t=.86, n.s.$ ) 및 총점( $M=15.81, M=15.87, t=.32, n.s.$ )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조사를 실시한 네 시점에서 취업여부와 정신건강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취업여부로 구분한 네 집단(변인명을 '집단'으로 명명함)과 성별을 피험자간 변인으로 삼고, 네 시점의 정

심건강 수준을 피험자내 변인으로 삼아서 삼원혼합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 결 과

본 연구에서 종속치로 다루고 있는 GHQ 점수가 6개월의 간격으로 이루어진 네 시점별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았다. 집단과 성별에 따라서 네 시점에서 측정된 정신건강 수준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집단과 성별을 피험자간 변인, 시점을 피험자내 변인으로 한 삼원혼합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우울과 불안, 부적응 및 총점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 GHQ 우울·불안

GHQ 우울·불안부터 보면, 성별의 주효과( $F_{(1,429)}=18.59, p<.01$ )와 시점의 주효과( $F_{(3,429)}=3.56, p<.05$ )가 유의했다. 구체적으로 남성( $M=7.57$ )보다 여성( $M=8.91$ )의 우울 및 불안 수준이 더 높았다. 시점의 주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차 시점( $M=8.10$ )보다 3차 시점( $M=8.41$ )에서 우울 및 불안 수준이 유의하게 높아지고( $F_{(1,429)}=5.45, p<.05$ ), 3차 시점보다 4차 시점( $M=8.06$ )에서 우울 및 불안 수준이 유의하게 낮아졌다( $F_{(1,429)}=11.61, p<.01$ ).

이에 더해서 시점과 집단( $F_{(9,1287)}=2.74, p<.01$ )의 이원상호작용이 유의했다. 시점과 집단의 상호작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네 집단별로 나누어서 시점의 효과를 알아보았는데, 미취업-미취업-미취업 집단( $F_{(3,387)}=3.59, p<.05$ ), 미취업-미취업-취업 집단( $F_{(3,174)}=3.04, p<.05$ ) 및 미취업-취업-취업 집단( $F_{(3,501)}=3.20, p<.05$ )에서 시점이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먼저 미취업-미취업-미취업 집단에서는 1차 시점( $M=8.38$ )과 2차 시점( $M=8.42$ )보다 3차 시점( $M=9.23$ )에서 우울 및 불안 수준이 유의하게 높아지고( $F_{(1,129)}=8.17, p<.01, F_{(1,129)}=8.10, p<.01$ ), 4차 시점( $M=8.60$ )에서 다시 낮아졌다( $F_{(1,129)}=4.86, p<.05$ ). 미취업-미취업-취업 집단에서는 2차 시점( $M=8.60$ ) 및 3차 시점( $M=8.66$ )보다 4차 시점( $M=7.62$ )에서 우울 및 불안 수준이 유의하게 낮아졌다( $F_{(1,58)}=4.73, p<.05, F_{(1,58)}=6.17, p<.05$ ). 미취업-취업-취업 집단에서는 1차 시점( $M=7.94$ )보다 2차 시점( $M=8.46$ )에서 우울 및 불안 수준이 유의하게 높아지고( $F_{(1,167)}=3.90, p<.05$ ), 2차 시점보다 3차 시점( $M=7.70$ ) 및 4차 시점( $M=7.95$ )에서 다시 낮아졌다( $F_{(1,167)}=7.51, p<.01, F_{(1,167)}=4.34, p<.05$ ). 집단과 시점에 따른 GHQ 우울·불안의 변화는 그림 1에 제시하였다.

### GHQ 부적응

GHQ 부적응을 보면, 성별의 주효과( $F_{(1,429)}=9.20, p<.01$ )와 시점의 주효과( $F_{(3,429)}=18.06, p<.001$ )가 유의했다. 구체적으로 남성( $M=6.84$ )보다 여성( $M=7.56$ )의 부적응 수준이 더 높았다. 시점의 주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차 시점( $M=7.69$ )보다 2차 시점( $M=6.85$ )에서 부적응 수준이 유의하게 낮아지고( $F_{(1,429)}=44.70, p<.001$ ), 다시 3차 시점( $M=7.27$ )에서 높아졌으며( $F_{(1,429)}=6.23, p<.05$ ), 4차 시점( $M=6.93$ )에서 다시 낮아졌다( $F_{(1,429)}=13.92, p<.001$ ).

또한, 시점과 집단( $F_{(9,1287)}=2.49, p<.01$ )의 이원상호작용이 유의했다. 시점과 집단의 상호작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네 집단별로 나누어서 시점의 효과를 알아보았는데, 미취업-미취업-취업 집단( $F_{(3,174)}=6.59, p<.001$ ), 미취업-취업-취업 집단( $F_{(3,501)}=9.36, p<.001$ ) 및 취업-취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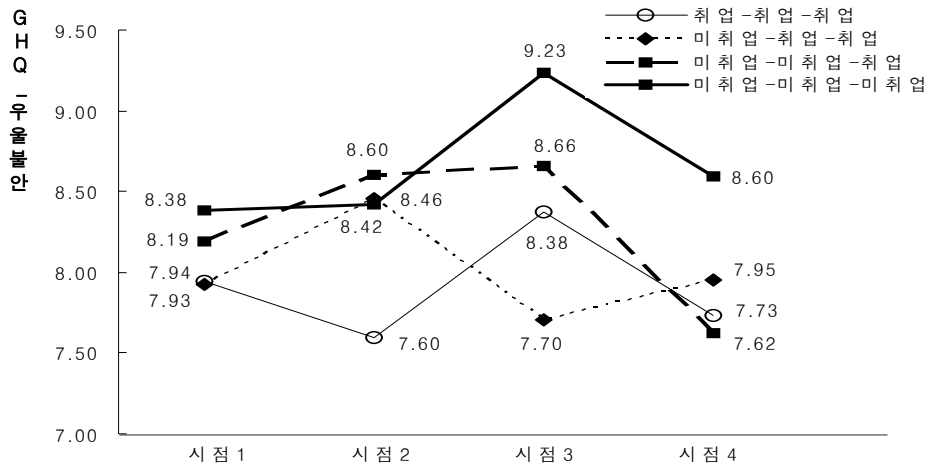


그림 1. 시점별 네 집단의 GHQ\_우울·불안 점수의 변화

취업 집단( $F_{(3,246)}=11.02, p<.001$ )에서 시점이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먼저 미취업-미취업-취업 집단에서는 1차 시점( $M=7.91$ )보다 2차 시점( $M=7.19$ )에서 부적응 수준이 낮아지고( $F_{(1,58)}=5.94, p<.05$ ), 3차 시점( $M=7.97$ )에서 다시 높아졌으며( $F_{(1,58)}=4.67, p<.05$ ), 4차 시점( $M=6.84$ )에서 다시 낮아졌다

( $F_{(1,58)}=11.89, p<.01$ ). 미취업-취업-취업 집단에서는 1차 시점( $M=7.59$ )보다 2차 시점( $M=6.67$ ), 3차 시점( $M=6.83$ ) 및 4차 시점( $M=6.88$ )에서 부적응 수준이 유의하게 낮아졌다( $F_{(1,167)}=24.33, p<.001, F_{(1,167)}=17.68, p<.001, F_{(1,167)}=20.38, p<.001$ ). 취업-취업-취업 집단에서는 1차 시점( $M=7.34$ )보다 2차 시점( $M=5.72$ )에서 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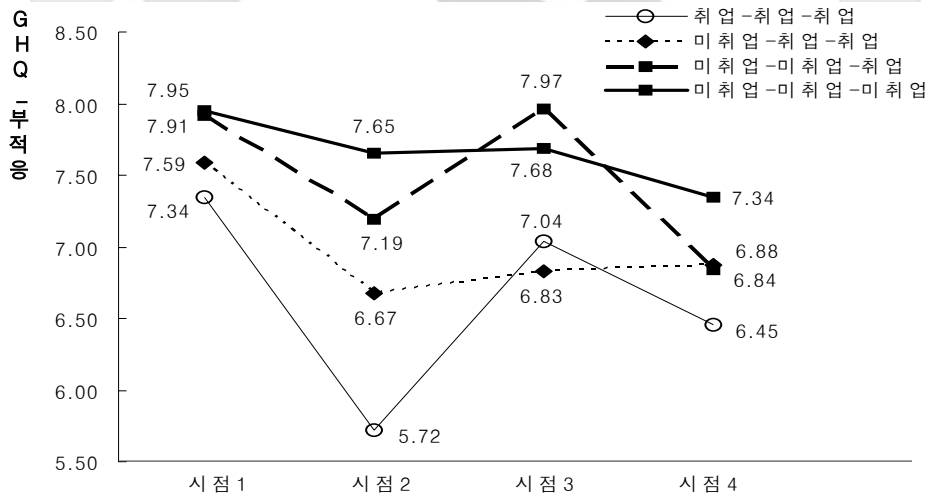


그림 2. 시점별 네 집단의 GHQ\_부적응 점수의 변화

표 2. 네 시점별 집단과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 수준의 평균(표준편차)

측정치	집단	성별	시점				
			1차 시점 Mean (SD)	2차 시점 Mean (SD)	3차 시점 Mean (SD)	4차 시점 Mean (SD)	
GHQ 우울·불안	취업-취업-취업	남자	7.74 (2.90)	7.35 (2.65)	7.83 (3.35)	7.22 (2.38)	
		여자	8.32 (3.43)	8.07 (2.91)	9.43 (4.53)	8.71 (3.54)	
		소계	7.94 (3.08)	7.60 (2.74)	8.38 (3.84)	7.73 (2.90)	
	미취업-취업-취업	남자	7.28 (3.08)	7.60 (3.43)	6.55 (2.92)	7.34 (2.81)	
		여자	8.79 (2.73)	9.60 (2.77)	9.24 (2.52)	8.76 (2.55)	
		소계	7.93 (3.02)	8.46 (3.30)	7.70 (3.05)	7.95 (2.79)	
	미취업-미취업-취업	남자	7.89 (2.85)	8.48 (2.24)	8.19 (2.17)	7.41 (2.62)	
		여자	8.45 (2.85)	8.71 (3.83)	9.06 (3.70)	7.81 (2.97)	
		소계	8.19 (2.84)	8.60 (3.17)	8.66 (3.09)	7.62 (2.80)	
	미취업-미취업-미취업	남자	8.06 (3.02)	7.74 (3.20)	8.64 (3.51)	8.00 (3.19)	
		여자	8.58 (3.28)	8.85 (3.53)	9.61 (3.68)	8.97 (4.14)	
		소계	8.38 (3.18)	8.42 (3.44)	9.23 (3.63)	8.60 (3.82)	
	남자		7.63 (3.00)	7.68 (3.08)	7.51 (3.19)	7.47 (2.78)	
	여자		8.60 (3.04)	8.98 (3.27)	9.38 (3.45)	8.70 (3.41)	
	총합		8.10 (3.05)	8.30 (3.24)	8.41 (3.44)	8.06 (3.16)	
	GHQ 부적응	취업-취업-취업	남자	7.46 (1.75)	5.46 (2.45)	6.93 (2.55)	6.28 (2.47)
			여자	7.11 (1.47)	6.21 (2.20)	7.25 (2.78)	6.79 (2.96)
			소계	7.34 (1.66)	5.72 (2.38)	7.04 (2.62)	6.45 (2.64)
미취업-취업-취업		남자	7.24 (1.77)	6.28 (2.61)	6.41 (2.46)	6.47 (2.24)	
		여자	8.06 (1.59)	7.19 (2.78)	7.40 (2.15)	7.42 (2.06)	
		소계	7.59 (1.74)	6.67 (2.71)	6.83 (2.37)	6.88 (2.21)	
미취업-미취업-취업		남자	7.56 (1.65)	6.93 (2.56)	7.37 (2.45)	5.96 (2.16)	
		여자	8.23 (1.26)	7.42 (2.53)	8.48 (2.42)	7.61 (2.36)	
		소계	7.91 (1.48)	7.19 (2.53)	7.97 (2.48)	6.84 (2.40)	
미취업-미취업-미취업		남자	8.14 (1.97)	7.40 (2.71)	7.64 (2.99)	7.14 (2.92)	
		여자	7.84 (1.99)	7.81 (2.69)	7.71 (2.79)	7.47 (3.34)	
		소계	7.95 (1.98)	7.65 (2.70)	7.68 (2.86)	7.34 (3.17)	
남자			7.53 (1.82)	6.41 (2.66)	6.92 (2.63)	6.51 (2.46)	
여자			7.87 (1.72)	7.33 (2.67)	7.66 (2.54)	7.38 (2.75)	
총합			7.69 (1.78)	6.85 (2.70)	7.27 (2.61)	6.93 (2.64)	
GHQ 총점		취업-취업-취업	남자	15.20 (3.93)	12.81 (4.18)	14.76 (5.16)	13.50 (4.05)
			여자	15.43 (4.54)	14.29 (4.58)	16.68 (6.54)	15.50 (6.05)
			소계	15.28 (4.12)	13.32 (4.35)	15.41 (5.70)	14.18 (4.88)
	미취업-취업-취업	남자	14.52 (4.22)	13.89 (5.41)	12.96 (4.66)	13.81 (4.43)	
		여자	16.85 (3.59)	16.79 (4.51)	16.64 (4.00)	16.18 (3.80)	
		소계	15.52 (4.11)	15.13 (5.23)	14.54 (4.74)	14.83 (4.32)	
	미취업-미취업-취업	남자	15.44 (3.36)	15.41 (4.09)	15.56 (3.48)	13.37 (3.52)	
		여자	16.68 (3.73)	16.13 (5.61)	17.55 (5.28)	15.42 (4.51)	
		소계	16.10 (3.58)	15.79 (4.93)	16.62 (4.60)	14.47 (4.18)	
	미취업-미취업-미취업	남자	16.14 (4.37)	15.00 (5.21)	16.22 (5.64)	15.02 (5.21)	
		여자	16.42 (4.54)	16.66 (5.18)	17.32 (5.71)	16.44 (6.52)	
		소계	16.31 (4.46)	16.02 (5.23)	16.90 (5.68)	15.90 (6.07)	
	남자		15.15 (4.11)	14.05 (5.00)	14.41 (5.04)	13.95 (4.44)	
	여자		16.47 (4.11)	16.31 (4.98)	17.03 (5.22)	16.08 (5.35)	
	총합		15.78 (4.16)	15.14 (5.11)	15.67 (5.29)	14.97 (5.01)	

응 수준이 낮아지고( $F_{(1,82)}=39.19, p < .001$ ), 2차 시점보다 3차 시점( $M=7.04$ )에서 다시 높아졌다( $F_{(1,82)}=16.74, p < .001, F_{(1,82)}=5.52, p < .05$ ). 집단과 시점에 따른 GHQ 부적응의 변화는 그림 2에 제시하였다.

**GHQ 총점**

GHQ 총점을 보면, 성별의 주효과( $F_{(1,428)}=18.48, p < .001$ )와 시점의 주효과( $F_{(3,428)}=8.18, p < .001$ )가 유의했다. 구체적으로 남성( $M=14.39$ )보다 여성( $M=16.47$ )의 정신건강 수준이 더 나빴다. 시점의 주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차 시점( $M=15.78$ )보다 2차 시점( $M=15.14$ )에서 정신건강 수준이 유의하게 더 좋아지고( $F_{(1,428)}=8.42, p < .01$ ), 다시 3차 시점( $M=15.67$ )에서 나빠졌으며( $F_{(1,428)}=19.32, p < .001$ ), 4차 시점( $M=14.97$ )에서 다시 좋아졌다( $F_{(1,428)}=19.25, p < .001$ ).

이에 더해 시점과 집단의 이원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F_{(9,1272)}=2.95, p < .01$ ). 시점과 집단의

상호작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네 집단별로 나누어서 시점의 효과를 알아보았는데, 미취업-미취업-취업 집단( $F_{(3,174)}=5.46, p < .01$ ), 미취업-취업-취업 집단( $F_{(3,501)}=2.75, p < .05$ ) 및 취업-취업-취업 집단( $F_{(3,246)}=6.02, p < .01$ )에서 시점이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먼저 미취업-미취업-취업 집단에서는 2차 시점( $M=15.79$ )보다 3차 시점( $M=16.62$ )에서 정신건강 수준이 나빠지고( $F_{(1,58)}=4.27, p < .05$ ), 4차 시점( $M=14.47$ )에서 다시 좋아졌다( $F_{(1,58)}=12.28, p < .01$ ). 미취업-취업-취업 집단에서는 1차 시점( $M=15.52$ )보다 3차 시점( $M=14.54$ ) 및 4차 시점( $M=14.83$ )에서 정신건강 수준이 좋아졌다( $F_{(1,167)}=7.59, p < .01, F_{(1,167)}=4.42, p < .05$ ). 취업-취업-취업 집단에서는 1차 시점( $M=15.28$ )보다 2차 시점( $M=13.32$ )에서 정신건강 수준이 좋아지고( $F_{(1,82)}=14.87, p < .001$ ), 3차 시점( $M=15.41$ )에서 다시 나빠졌다( $F_{(1,82)}=5.54, p < .05$ ). 집단과 시점에 따른 GHQ 총점의 변화는 그림 3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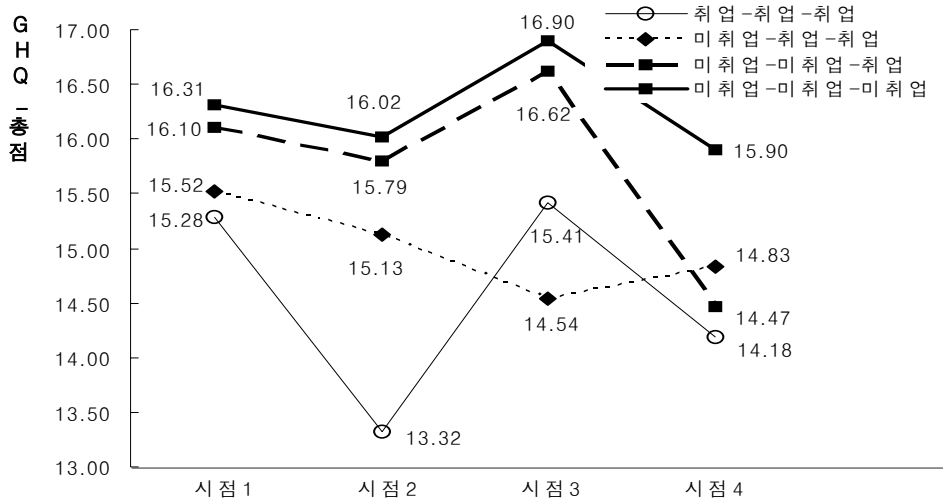


그림 3. 시점별 네 집단의 GHQ 총점의 변화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청년들의 취업 및 실업 경험이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청년실업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들(장재윤 등, 2004; Bachman et al., 1978; Banks & Jackson, 1982; Gurney, 1980; Patterson, 1997; Patton & Noller, 1984; Winefield et al., 1993)과 일관되게 실업의 경험이 정신건강에 부정적 효과를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이와 반대로 취업의 경험은 선행연구들(Graetz, 1993; Lahelma, 1992; Morrell et al., 1994)에서 나타난 대로 정신건강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6개월 간격으로 네 시점에서 취업 상태와 정신건강을 측정하여 그 변화를 알아보았고, 구체적으로 다음 두 가지 연구물음에 초점을 두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첫째, 지속적으로 취업에 실패한 장기 실업집단에서 네 시점에 따라 정신건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는데 초점을 두었다. 둘째, 2차 시점에서 취업 상태인 집단, 3차 시점에서 취업 상태인 집단 및 4차 시점에서 취업 상태인 집단의 정신건강의 변화도 알아보았는데, 특히 취업에 성공한 시점을 전후로 정신건강 수준이 달라지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GHQ로 정신건강의 수준을 측정하였는데, GHQ는 우울 및 불안 하위척도와 부적응 하위척도로 나뉜다. 이 두 가지 하위척도로 구분하여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울 및 불안의 경우에는 취업에 성공하거나 실패한 결과에 의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영향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집단별로 우울 및 불안의 변화를 살펴보면, 졸업 3개월 이전

에 이른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취업-취업-취업 집단)은 네 시점에 걸쳐 우울 및 불안 수준의 변화가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에 졸업을 전후로 한 취업시점이 끝난 3차 시점, 즉 대학졸업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취업 상태에 있던 사람들(미취업-취업-취업 집단)은 미취업 상태인 2차 시점에서는 기저선 단계인 1차 시점보다 우울 및 불안 수준이 높아졌다가 취업에 성공한 이후인 3차 시점에서는 다시 낮아졌고 이러한 변화는 4차 시점까지 지속되었다. 이와 유사한 패턴으로 졸업 후 9개월이 지나고 구직활동을 개시한지 1년이 지난 4차 시점에서 취업 상태에 있던 사람들(미취업-미취업-취업 집단)은 미취업 상태인 2차 및 3차 시점보다 취업에 성공한 이후인 4차 시점에서 우울 및 불안 수준이 급격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의 성공에 따라 우울 및 불안 수준이 낮아진다는 이러한 결과는 노출가설을 지지하는 것이며, 특히 ‘취업성공 노출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세 시점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미취업 상태에 있던 사람들의 우울 및 불안의 변화가 흥미롭다. 이들의 경우에는 재학 중이던 1학기 기저선 시기나 졸업 3개월 전의 구직활동 시기에 비해, 졸업을 하고 3개월이 지나고 취업시점이 끝난 3차 시점에서 우울 및 불안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러한 변화는 노출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며, 특히 ‘취업실패 노출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구직활동을 개시한 지 1년이 지나고 실업이 장기화 되는 4차 시점에서는 오히려 우울 및 불안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실패 노출효과는 다소 둔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추가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장기 실업상태로 접어드는 이들 대학졸업자들의 우울 및 불

안 수준은 다른 취업성공 대학졸업자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4차 시점에서 네 집단의 우울 및 불안 수준을 비교한 결과, 지속적으로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미취업 집단( $M=8.60$ )은 나머지 세 집단보다 여전히 유의미하게 우울 및 불안이 높은 수준이었다(미취업-미취업-취업 집단,  $M=7.62$ ,  $F_{(1,1287)}=13.92$ ,  $p < .001$ ; 미취업-취업-취업 집단,  $M=7.95$ ,  $F_{(1,1287)}=13.34$ ,  $p < .001$ ; 취업-취업-취업 집단,  $M=7.73$ ,  $F_{(1,1287)}=10.97$ ,  $p < .01$ ). 따라서 우울 및 불안 수준으로 측정된 결과를 종합하면, 실업의 지속은 여전히 우울과 불안 문제를 초래하고, 취업의 경험은 이전의 실업으로 인해 초래된 우울과 불안 문제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실업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설명하는 노출가설과 연관하여 해석하면, 우울과 불안의 변화에 있어서 ‘취업성공 노출효과’와 ‘취업실패 노출효과’ 모두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신건강을 부적응 수준으로 측정된 결과를 살펴보면, 앞서 우울 및 불안이 현재 취업에 성공하였느냐 혹은 실패하였느냐에 따라서 민감하게 달라졌던 것과는 달리, 부적응 수준의 변화는 취업 여부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지 않았으며,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유의미한 변화를 보여 별도의 변인이 부적응 수준의 변화에 간여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구체적으로 시점간 변화를 살펴보면, 장기간 미취업 상태에 있던 사람들(미취업-미취업-미취업 집단)은 네 시점에 걸쳐 부적응 수준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앞서 우울 및 불안의 경우에는 실업이 지속됨에 따라 우울 및 불안 수준의 변화가 유의미했던 것과 달리, 부적응의 경우에는 시점에 걸친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부적응의 경우 ‘취업

실패 노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한편, 졸업 3개월 이전에 이른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취업-취업-취업 집단)은 취업에 성공한 2차 시점에서 부적응 수준이 두드러지게 낮아졌으나, 졸업 후 3개월이 지난 3차 시점에서는 2차 시점에 비해 부적응 수준이 다시 유의미하게 높아져 취업여부에 따른 지속적인 변화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조기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의 부적응 수준은 취업에 성공했다는 경험 자체 보다는 취업에 따른 환경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추가적 과제에 따라 영향 받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이른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의 경우에 졸업 후 3개월이 지난 3차 시점은 대학생활과는 다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시기이며, 직장에서 새로운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파악하고 적응해야 하는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전 혹은 이후 시점보다 부적응 수준이 높아졌던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졸업을 전후하여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미취업-취업-취업 집단)의 경우에도 취업여부가 부적응의 변화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저선 단계인 1학기에 실시한 1차 시점에 비해 구직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던 2차 시점에서 부적응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아졌으나, 그 후 정작 취업에 성공한 3차 시점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졸업 후 9개월이 지났고 구직활동을 개시한지 1년이 지난 4차 시점에서 취업 상태에 있던 사람들(미취업-미취업-취업 집단)은 미취업 상태인 3차 시점보다 취업에 성공한 이후인 4차 시점에서 부적응 수준이 낮아졌다. 하지만 이들 역시 1차 시점에 비해 2차 시점에서 부적응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아졌고, 3차 시점에 다시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변화를 보여 부적응 수준의 변화가 취업 및

실업 여부와는 밀접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부적응 수준의 변화는 측정 시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집단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시점의 변화가 유의미 했는데, 기저선 단계인 1차 시점보다는 구직활동이 활발한 2차 시점에서 부적응 수준이 유의미 하게 낮아졌고, 다시 취업시즌이 끝난 3차 시점에서 부적응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이를 집단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미취업-미취업-취업 집단, 미취업-취업-취업 집단 그리고 취업-취업-취업 집단에서 모두 1차 시점에 비해서 2차 시점에서 유의하게 부적응 수준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2차 시점, 즉 구직 활동이 활발한 시점에서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부적응 수준이 낮아졌다. 다만 최종 4차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취업에 실패한 집단에서만 이 2차 시점에서 부적응 수준이 낮아지지 않았다. 선행연구(장재윤 등, 2004)에서 언급된 대로 GHQ의 부적응 수준은 일상 생활에서 일정한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평가와 관련된 내용들이며, 현재 자신이 얼마나 일정한 활동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내용임을 고려할 때, 장기 미취업자들은 활발한 구직활동이 이루어질 시기에 다른 사람들이 이전 보다 더 기능적이고 활동적일 때에도 이들은 별다른 기능상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의 성공 여부와는 별도로 구직 활동에 활발하게 개입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부적응 수준이 달라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활발한 직업탐색 행동이 구직자의 자기 가치감과 관련이 있다는 Wanberg, Watt 및 Rumsey (1996)의 연구, 직업탐색 활동과 신경증 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밝힌 Schmit, Amel 및 Ryan

(1993)의 연구, 관계망을 통한 직업탐색 행위는 외향성, 성실성 같은 긍정적인 성향과 관련이 있다는 Wanberg, Kanfer, 및 Banas(2000) 등의 연구 결과로 미루어, 구직활동과 정신건강 부적응 수준 간의 관련성을 추론해 볼 수 있다.

## 본 연구의 시사점

청년실업의 문제가 주요한 사회적 관심사 중의 하나이지만, 실제로 청년의 실업과 취업 경험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전국규모로 종단연구를 실시한 연구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종단연구로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별 국공립대 및 사립대의 모집단 비율을 반영하여 20개 대학을 선정해 각 대학별로 자료를 얻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가 현재 우리사회의 청년 실업 및 취업의 결과를 비교적 충실히 반영해주는 자료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6개월의 간격으로 총 1년 6개월 동안 네 차례에 걸쳐서 조사가 이루어져서, 졸업 전 재학 시점, 졸업 3개월 전 시점, 졸업 3개월 후 시점, 그리고 취업이나 실업이 장기화된 시점에서 자료를 얻었다. 또한 취업 성공 시점에 따라 집단을 세분화하여 정신건강의 변화 추이를 살펴봐왔으므로, 짧은 시간간격을 두고 이루어진 종단연구에 비해서 취업으로 인한 실질적인 변화의 양상을 알아내는데 유리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1차 조사를 시작하고 1년 6개월이 지난 4차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조사에 응답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다른 속성을 지녔다고 추론할 수도 있다. 그러나 4차 시점까지 응답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



들이 1차 시점에서 측정된 여러 변인들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가 지속적으로 응답한 사람들의 성향에 의해 편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이 두 집단이 본 연구의 종속치인 정신건강 수준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물론 본 연구에서 취업상태로 구분한 네 집단에 포함된 성별 비율이 유의하게 다른 점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졸업 3개월 이전에 일찍이 취업에 성공하여 지속적으로 취업 상태에 있던 집단에서 여성보다 남성의 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실제로 여성들의 취업률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본 연구의 성별비율은 우리사회의 취업 혹은 실업의 청년남녀 비율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대로 우울 및 불안 수준은 취업 및 실업 상태에 따라서 영향을 받았다. 전반적으로 취업은 우울 및 불안의 문제를 완화시키고, 실업상태가 지속되면 우울 및 불안 문제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청년기의 실업은 다른 연령대와 달리 초래되는 문제가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Creed와 Watson(2003)은 청년의 경우에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경제적 부담이나 역할에 대한 압박은 더 낮을 수도 있음을 언급했다. 예를 들어 청년들의 경우에 실업 상태에서도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얻을 수도 있고, 여전히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은 정신건강 수준을 떨어뜨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Broomhall과 Winefield(1990)에서는 실업으로 인한 정신건강 수준은 15세에서 30세 사이의 연령대보다 4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더 심한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20세에서 30세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서 다른 연령대와의 비교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실업이 지속되는 기간에 따른 우울 및 불안의 문제 그리고 취업에 성공하면서 우울 및 불안의 문제가 완화되었다는 결과를 보면, 청년실업은 여전히 정서적인 문제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실업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러한 우울 및 불안과 같은 정서적 문제가 지속될 뿐 아니라, 청년실업자들의 경우 독립적 직업이나 고용상태를 이루지 못하여서 성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실패할 수 있고(Hannan et al., 1997), 유능성이나 자율성이 낮아질 수 있으며(Warr, 1987), 보다 장기적으로는 자신들만의 문화를 형성하여 전체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분리될 수 있고(Creed & Reynolds, 2001; Hannan et al., 1997), 범죄에 가담할 가능성도 높아진다(Hammarstrom, 1994). 이는 청년실업으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을 예방하고 돕기 위한 대책과 함께, 실업이라는 스트레스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부적응 수준에 대해서 얻은 본 연구의 결과는 상당히 흥미롭다. 전반적으로 부적응 수준은 취업 및 실업 상태에 의해서 영향 받기보다는, 구직활동을 하느냐 여부와 같은 다른 변인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특히 구직개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여전히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부적응 수준이 시점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으며 전반적으로 높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경우에 다른 이들이 구직활동에 관심을 기울이는 졸업 전 시점에서부터 구

직활동에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가지거나 덜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 지속적으로 취업에 실패한 이들은 구직활동에 대한 관심이나 구직활동의 방법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양상을 보일 수도 있고,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면서 이들이 구직을 포기하는 실망실업자가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 본 연구의 제한점과 장래 연구의 과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실업과 취업 경험이 청년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1차, 2차, 3차 및 4차 시점별로 나누어서 취업여부를 알아보았다. 하지만 각 시점에서 취업상태인지 혹은 실업상태인지 알 수 있지만, 정확히 어느 시점에서 조사대상자들이 취업이 되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었다. 6개월의 간격에서 재취업한 경험의 빈도는 정신건강에 또 다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없었다. 둘째, 실업 상태에서 취업에 성공한 경험 및 실업의 지속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으나, 취업 상태에서 실업 상태로 변화하는 경우에 정신건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볼 수 없었다. 일부 참가자들의 경우에 취업에서 실업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들의 표집 수가 매우 작아서 분석에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앞서 언급한 시사점들에 의해서 장래연구의 과제를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직활동 여부가 부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검토되었으므로, 실업자들의 구직활동의 빈도와 방

식이 취업자들과 다른지에 대해 장래연구를 통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구직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사람들이 실제로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고 이들이 장기적으로 실망실업자로 옮겨갈 가능성에 대해서 추후연구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 둘째, 취업 및 실업의 경험이 정신건강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의 다양한 특성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후연구에서 이러한 개인차 변인들을 HLM분석이나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종단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구직활동의 적극성 여부는 취업과 실업이 정신건강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의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는 변인으로 시사되므로 추후 연구에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와 선행연구를 통해서 실업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반복검증되었다. 따라서 실업 경험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심리적 변인이 영향을 받아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좀더 자세한 심리적 기제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Jahoda(1982)는 직업은 명시적 및 암묵적 기능을 하게 되는데, 실업은 이러한 직업의 기능을 저하시키므로 정신건강이나 주관적 안녕을 낮출 것이라고 보았다. 장래 연구를 통해서 실제로 이러한 기능의 박탈경험이 실업으로 인한 정신건강이나 주관적 안녕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아볼 수 있다. 넷째, 본 연구를 통해서 취업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따라서 정신건강이 달라지는 점을 알아볼 수 있었으나, 취업과 실업이 반복하여 자주 나타나는 빈도, 한 직장에 머무르는 간격 등도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취업력은 정신건강 수준과 상관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장래 연구에서는 취업력에 대한 정보를 보다 자세히 얻어서 이와 정신건강을 비롯

한 여러 변인과의 관련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다섯째, 장기적인 실업은 우울 및 불안의 문제를 야기시켰다. 그렇다면 이러한 실업자들의 우울 및 불안의 문제를 완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의하면 취업의 경험이 이러한 문제를 완화키지만, 취업 이외에 다른 치료적 개입의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Kieselbach, 2003)나 인지행동치료와 같은 기법(Creed, Machin, & Hicks, 1999)이 취업으로 인한 정신건강의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구체적인 치료적 개입이 이들의 정신건강의 문제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연구도 필요하겠다.

### 참고문헌

- 경향신문 (2005, 9, 16). 일자리 없는 추석이 서럽다.
- 동아일보 (2005, 9, 16). 취업·구직자 단념자 多 늘었다.
- 신선인 (2001). 한국판 일반정신건강척도(KGHQ)의 개발에 관한 연구 I: KGHQ-20과 KGHQ-30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6(9), 210-235.
- 신현균, 장재운 (2003). 대학 4학년생의 성격특성과 성별에 따른 취업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4), 815-827.
- 장재운, 장은영, 김범성, 노연희, 이지영, 한지현 (2004). 청년실업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3(2), 121-144.
- Abma, J. (1991). *Alcohol use among young adults in 1988: Results from the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unpublished report, Center for human resource research, The Ohio state University.
- Atkinson, J. S., Montoya, I. D., Whitsett, D. D., Bell, D. C., & Nagy, C. W. (2003). The relationship among psychological distress, employment, and drug use over time in a sample of female welfare recipient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1, 223-234.
- Axelsson, L., & Ejlertsson, G. (2002). Self-reported health,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among young unemployed people: A population-based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11, 111 - 119.
- Bachman, J. G., O'Malley, P. M., & Johnston, J. (1978). *Youth in transition, Vol 4, Adolescence to adulthood-change and stability in the lives of young men*. Ann Arbor, MI: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 Banks, M. H., & Jackson, P. R. (1982). Unemployment and risk of minor psychiatric disorder in young people. *Psychol Medicine*, 12, 789-798.
- Baron, S. W., & Hartnbagel, T. F. (1998). Street youth and criminal violenc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5, 166-192.
- Brief, A. P., Konovsky, M. A., Goodwin, R., George, J. M., & Link, K. (1995). Inferring the meaning of work from the effects of unemployment.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5, 693-711.
- Broomhall, H. S., & Winefield, A. H. (1990). A

- comparison of the affective well-being of young and middle-aged unemployed men matched for length of unemployment.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63, 43 - 52.
- Creed, P. A., Machin, M. A., & Hicks, R. (1999). Improving mental health status and coping abilities for long-term unemployed youth using cognitive-behaviour therapy based intervention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0, 963-978.
- Creed, P. A., & Macintyre, S. R. (2001). The relative effects of deprivation of the latent and manifest benefits of employment on the wellbeing of unemployed people.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6, 324-331.
- Creed, P. A., Muller, J., & Machin, M. A. (2001). The role of satisfaction with occupational status, neuroticism, financial strain and categories of experience in predicting mental health in the unemployed.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 435-447.
- Creed, P. A., & Reynolds, J. (2001). Economic deprivation, experiential deprivation and social loneliness in unemployed and employed youth. *Journal of Community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11, 167-178.
- Creed, P. A., & Watson, T. (2003). Age, gender, psychological wellbeing and the impact of losing the latent and manifest benefits of employment in unemployed people.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55, 95-103.
- Dooley, D., & Prause, J. (1998). Underemployment and alcohol abuse in the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9, 669-680.
- Fryer, D. (1995). Benefit Agency? Labour market disadvantage, deprivation and mental health. *The Psychologist*, 8, 265-272.
- Goldsmith, A. H., Veum, J. R., & Darity, W. Jr. (1997). Unemployment, joblessnes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self-esteem: Theory and evidence. *Journal of SocioEconomics*, 26, 2.
- Graetz, B. (1993). Health consequences of employment and unemployment: Longitudinal evidence for young men and women. *Social Science & Medicine*, 36, 715-724.
- Gurney, R. M. (1980). The effects of unemployment on the psychosocial development of school-leavers.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53, 205-213.
- Hammarstrom, A. (1994). Health consequences of youth unemployment: Review from a gender perspective. *Social Science & Medicine*, 38, 699-709.
- Hammarstrom, A., & Janlert, U. (1997). Nervous and depressive symptoms in a longitudinal study of youth unemployment: Selection or exposure? *Journal of Adolescence*, 20, 293-305.
- Hammarstrom, A., Janlert U., & Winefield, A. H. (2002). Unemployment and health behaviour after leaving school: The influence of unemployment level. *International Congress Series*, 1241, 173-181.
- Hannan, D. F., O'Riain, S., & Whelan, C. T. (1997). Youth unemployment and psychological distress in the Republic of Ireland. *Journal of Adolescence*, 20, 307-320.
- Hoare, N., & Machin, A. (2004). *Self-esteem, affectivity, and deprivation: Predictors of*

- well-being in the unemployed.* This paper was first presented at the 19th Annual Conference of the Society for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2-4 April, 2004 in Chicago.
- Jahoda, M. (1982). *Employment and unemployment: A social-psychological analysis.*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andel, D. B. (1980). Drug and drinking behavior among youth. *Annual Review of Sociology*, 6, 235-285.
- Kieselbach, T. (2003). Long-term unemployment among young people: The risk of social exclusion.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2, 69-76.
- Lahelma, E. (1992). Unemployment and mental well-being: Elaboration of the relationship,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ervices*, 22, 261-274.
- McKee-Ryan, F. M., Song, Z., Wanberg, C. R., & Kinicki, A. J. (2005). Psychological and physical well-being during unemployment: A Meta-Analytic Stud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0, 53-76.
- Morrell, S., Taylor, R., Quine, S., Kerr, C., & Western, J. (1994). A cohort study of unemployment as a cause of psychological disturbance in Australian youth. *Social Science & Medicine*, 38, 1553-1564.
- Mortimer, J. T., & Staff, J. A. (2004). Early work as a source of developmental discontinuity during the transition to adulthood.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6, 1047-1070.
- Murphy, G. C., & Athanasou, J. A. (1999). The effect of unemployment on mental health.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72, 83-99.
- Patterson, L. J. (1997). Long-term unemployment amongst adolescents: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dolescence*, 20, 261-280.
- Patton, W. A., & Noller, P. (1984). Unemployment and youth: A longitudinal study.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36, 399-413.
- Prause, J., & Dooley, D. (1997). Effect of underemployment on school-leavers' self-esteem. *Journal of Adolescence*, 20, 243-260.
- Schaufeli, W. B. (1997). Youth unemployment and mental health: Some Dutch findings. *Journal of Adolescence*, 20, 281-292.
- Schmit, M. J., Amel, E. L., & Ryan, A. M. (1993). Self-reported assertive job-seeking behaviors of minimally educated job hunters. *Personnel Psychology*, 46, 105-124.
- Smailes, E. M. (2003). *Difficult work conditions and youths' mental health: Selection or caus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 Wanberg, C. R., Kanfer, R., & Banas, J. T. (2000). Predictors and Outcomes of Networking Intensity Among Unemployed Job Seeker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5, 491-503.
- Wanberg, C. R., Watt, J. D., & Rumsey, D. J. (1996). Individuals without jobs: An empirical study of job-seeking behavior and reemploymen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1, 76-87.
- Warr, P. (1987). *Work, unemployment and mental health.* Oxford: Clarendon Press.

- Winefield, A. H. (1997). Introduction to the psychological effects of youth unemployment: International perspectives. *Journal of Adolescence*, 20, 237-241.
- Winefield, A. H., Tiggemann, M., & Winefield, H. R. (1992). Spare time us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employed and unemployed young people.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65, 307-313.
- Winefield, A. H., Tiggemann, M., Winefield, H. R., & Goldney, R. D. (1993). *Growing up with unemployment: A longitudinal study of its psychological impact*. London: Routledge
- 1 차원고접수 : 2006. 3. 23  
수정원고접수 : 2006. 5. 14  
최종게재결정 : 2006. 6. 02

K C I

## The Change of Mental Health according to the State of Employment among the University Graduates

Chang, Jae-Yo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Jang, EunYoung

Iowa Stae University

Shin, Heecheon

Ajou University

This longitudinal study investigated the change of mental health according to the state of employment among the university graduates. The purpose of this study had two folds. First purpose was to evaluate the effect of long term youth unemployment experience on the mental health. Second purpose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employment experience on the mental health among the university graduates. To achieve this research purpose, we designed longitudinal study composed by four surveys at six-month intervals. At all four points, participants were asked to answer GHQ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to measure the level of mental health. GHQ consists of depression anxiety subscale and disadjustment subscale. The data from 560 graduates who were identified whether employed or not were used for final analysis. We divided this data into four groups: First, 'employment-employment-employment group(G1)' was composed by the graduates who were employed at T2, T3 and T4. Second, 'unemployment- employment-employment group(G2)' was composed by the graduates who were employed at T3 and T4. Third, 'unemployment-unemployment-employment group(G3)' was composed by the graduates who were employed at T4. Fourth, 'unemployment-unemployment-unemployment group(G4)' was composed by the graduates who were unemployed during all four poin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mployment had positive effect on the emotional mental health at the point of job achievement, and that the long term youth unemployment resulted in the negative changes of the emotional mental health(GHQ-depression anxiet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and future directions of study were suggested.

*Key words* : *employment, unemployment, youth unemployment, mental health, longitudinal study, GHQ.*